정치권 곳곳 '파열음' … 갈라서기 전주곡?

한나라, 친朴 계파모임 준비에 친李 비판

민주당, 정동영 재보선 출마 찬반 논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내부 갈등 조짐이 일어 정국이 미묘한 변화 기류를 보이고 있다. 4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김무성 의원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왼쪽〉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상임고문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4·29 재보선 출마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간의 찬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도 친이(친 이명박 대통령)계와 친박(친 박근혜 의원)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흐름과 더불어 4·29 재보선 공천과 그 결과 등에 따라 각 정당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정동영 전 장관이 옛 지역구인 전주 덕진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빠르면 내주 중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지면서 찬반논란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이에 대해 현 지도부와 386 그룹 등 당내 주류는 불편한 심경이다. 기본적으로 정 전 장관의 정계 복귀에는 찬성하지만 옛 지역구인 전주 덕진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대선 패배의 당사자가 수도권도 아닌 '누워서 떡 먹기'인 옛 지역구로 '유턴'하는 것은 당원이나 국민 여론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내 비주류에서는 주류 측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비주류연합체격인 민주연대 공동대표인 이종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당 일각에서 공천심사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 개혁공천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비민주적 행태는 자제돼야 한다"고 정 전 장관의 복귀를 옹호했다.

이는 사실상 당내 비주류 측에서 정 전 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당내 최대 정파를 이끌었던 정 전 장관의 복귀가 현실화된다면 당내 역학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주류와 비주류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전 장관의 지역적 기반이 같은데다 차기 대선 도전 등에서도 잠재적 경쟁자라는 점도 주류와 비주류 측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전 장관 출마가 현실화되면 당내 분란과 함께 권력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도 친이계와 친박계의 고질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그동안 몸을 낮췄던 친박 진영은 계파모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으고 조만간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모임 이름이나 성격 등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2월 임시국회와 정권출범 1주년을 넘긴 다음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해진다.

친박 모임 발족으로 확실한 계파 구심이 형성될 경우 내달 이재오 전 최고위원 귀국 및 당협위원장 인선, 4월 재·보선 공천 문제 등 사안마다 치열한 계파 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직접적 대응을 삼가는 한편 개별적인 설득을 통해 최대한 마찰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직접 대응할수록 문제가 복잡해지고 해결이 힘들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소나기를 피한 뒤 상황변화에 따라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이 진영과 친박 진영의 유기적인 화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당내 불협화음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남구의회 해외연수 보류

경제난·외유성 비난 여론 부담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 외유성 해외연수를 추진해 물의를 일으킨 광주 남구의회〈본보 3일자 5면 보도〉가 2월 해외연수 계획을 보류했다.

4일 광주 남구의회는 '의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12일부터 방문키로 한 중국·터키·미국 등 해외연수 계획을 심의한 결과, 연수 목적이 불분명해 이번 연수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구의회는 2월 해외연수 계획을 폐기하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연수 계획을 다시 세워 일정·장소 등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해외연수 심사위원장인 박춘수 부의장은 "4일 오전 민간위원 2명 등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월 해외연수 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 일단 보류했다"며 "연수 목적을 뚜렷하게 정하고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추후 재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장근일 참여자치21 전 감사는 "이번 연수는 누가 봐도 외유성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며 "해외연수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연수 목적과 일정·장소 등을 재조정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조영표 의장 등 의원 12명 전원이 3개팀으로 나눠 12일부터 중국, 터키, 미국 등을 방문키로 했다. 하지만 방문지역이 항저우, 이스탄불, 그랜드캐니언 등 대표적인 관광지여서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북구의회, 최운초 의장 불신임안 상정

'뒷돈선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사퇴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최운초(64·구속) 광주 북구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에 상정됐다.

광주 북구의회는 4일 제160회 임시회 첫 회의를 열어 이승희(진보신당) 의원이 발의한 '최 의장 불신임안'을 회기 중 상정해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불신임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북구의회는 그동안 의장단 이름으로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종용했지만 최 의장이 2월말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불신임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장은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부인 주모(56) 씨에게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8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정치권 입법전쟁 놓고 설전

野 "경제 무관 악법 포기" 與 "대한민국 발목잡기"

입법전쟁을 앞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에도 설전을 펼치며 상대를 자극했다. 이날은 민주당 측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공격하자 한나라당이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경제살리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악법들을 포기하라"며 쟁점법안인 언론관련법과 금산분리법의 여야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 "위기의 핵심에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다"며 "70년대 밀어붙이기식 리더십, 대결과 소통 부재의 리더십으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위기의 원인이 현 정권의 헌법 무시에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만에 헌법정신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헌법정신을 무시한다면 야당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원내대표는 나아가 "2월 국회는 이명박 정부 1년간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첫째, 용산사태의 책임추궁과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둘째,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로 서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기극복에 팔을 걷어붙인 국민과 대통령, 한나라당의 노력은 외면하고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연설이 비난 비방 일색밖에 안 되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며 겉으로는 한나라당과 정부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경제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법률들은 악법이라 치부하며 외면하는 이율배반을 확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IT산업이 고작 반정부 세력을 선동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미디어 개혁법이 가져올 IT·방송·기계·서비스 산업의 폭발적인 변혁은 아예 감도 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무소속 이윤석 의원 민주당 복당 확정적

무소속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사진)의 민주당 복당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부적으로는 이 의원의 복당이 거의 확정됐으며 금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께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복당이 확정되면 호남 무소속 의원 중 박지원·김영록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복당이 이뤄지게 되며 민주당의 의석은 83석에서 84석으로 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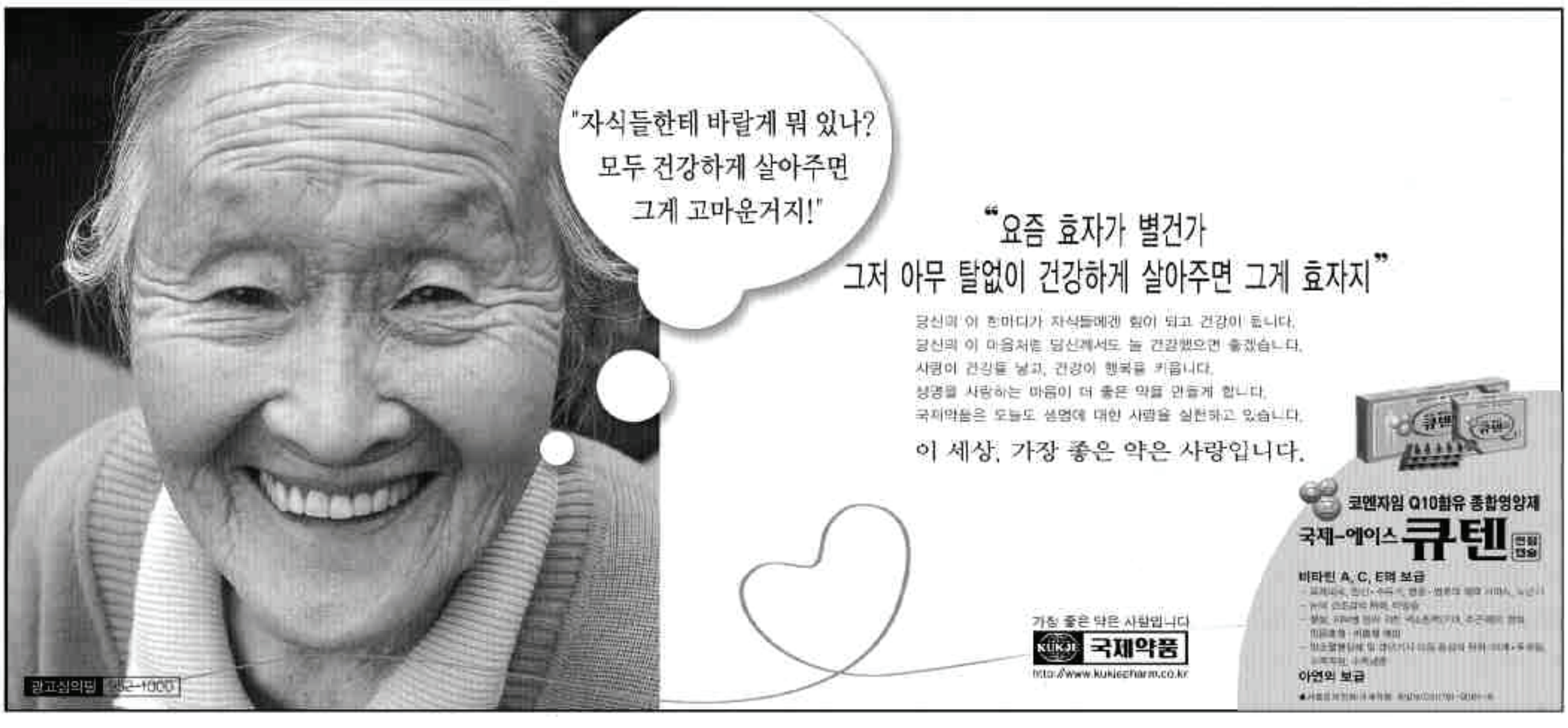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순환로 소음 민원 해결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

광주 제2순환도로로 인한 소음 방지 대책 민원이 2년 만에 해결됐다.

4일 광주시의회 유재신(광산구2) 의원에 따르면 2007년 5월 광주 제2순환도로 개통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광산구 신창호반6차아파트 소음 방지 대책 민원이 토지공사가 방음벽과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고, 향후 30년간의 유지관리비용 15억원을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주식회사에 지불토록 결정, 해결됐다.

민원 중재에 나섰던 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광주시와 토지공사가 최종 합의를 통해 토지공사가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민원이 원만히 해결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